

한덕수 “단일화 실패는 국민 대한 배신…어떤 방식도 찬성”

“김문수보다 절 지지하는 분 훨씬 많아”

“이재명, 잘못된 내공…국가 도움 안 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 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를 두고 “단일화가 실패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것”이라며 “어떤 방식의 단일화에도 다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단일화가 안 되면 대선 레이스를 중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것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반드시 적절한 시간 안에 단일화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도를 바꾸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열화와 같은 반응이 있다”며 “이는 저 개인에 대한 기대가 아니다. 어느 정치인도, 국정을 하는 사람도 이러한 국민의 의지를 감히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드시 단일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7대, 6대 국가로 성장하게 하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끝없는 의지와 설득이 동행될 것이다. 저는 그런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지적에는 “저는 걱정하지 않는다”며 “김 후보도 훌륭하고 청렴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다. 무엇이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가에 대해 잘 (결정)해 주실 거라 믿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모든 문을 열었다. 어떤 방식의 단일화에도 다 찬성”이라며 “다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가 다 함께 가야 한다. (김 후보와) 지지 세력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훌륭하신 분이므로 앞으로 우리 정치에서 큰 일을 하셔야 한다”며 “저는 제가 디딤돌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확실하다. 제가 다 하겠다는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저는 천재가 아니라는 걸 잘 안다. 노력 가일 뿐”이라며 “권력을 배분하고 임기도 3년으로 마친 뒤 확실하게 떠날 거다. 말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았다. 개헌을 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정치적 이유 때문에 항상 사장이었던 수많은 정치인과 저는 다를 것이고, 그렇게 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경쟁력을 두고는 “내공이 쌓였다고 하는데 잘못된 내공이 쌓였다. 그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정책은 대부분 국가를 위해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어떤 부분이 진짜 정책인지도 잘 모르지 않나.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고, 모든 걸 본인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에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개헌을 위한 빅테트에 어디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어



느 누구도 배제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더 많은 분이 이러한 시대정신을 따르기 위한 제도적 개혁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헌 연대는 특정인을 분리하기 위한 사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개헌 연대를 통해 요동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고, 기반이 흔들리는 제도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수십 년간 정치와 권력을 묵

적하는 사람들이 항상 개헌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후보는 이번 대선 출마를 누구와 상의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말리시는 분들이 더 많았다”며 “몇 날을 고민했고,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 국민 모두를 한마음으로 통합해 가면서 제가 디딤돌이 돼야 한다는 생각과 결론에 도달했다. 충분히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김문수 “당, 전국위·전당대회 소집 이유 밝혀야…단일화 걸림돌 유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6일 당 지도부를 향해 “당은 전국위원회, 전당대회를 개최한 이유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당이 의제와 안건도 공개하지 않고 전국위와 전당대회 소집을 공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여러 차례 치열한 경선을 진행했고 그 결과 김문수가 당원과 국민의 뜻에 따라 정당한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됐다”며 “5일 오후 8시 후보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면담했고 단일화 추진과 후보 지원을 위한 당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후보를 배제한 채, 일방적 당 운영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더욱이 당은 단일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선거대책본부 구성과 당직자 임명에도 아직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후보가 주도해야 할 단일화 추진 기구도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가운데 당은 의제와 안건도 공개하지 않고 전국위와 전당대회 소집을 공시했다. 전국위와 전당대회는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절차로 판단된다”며 “당은 8·9일 전국위원회, 10·11일 전당대회를 개최한 이유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슬비기자

이재명 “모든 공공기관 호봉에 軍 복무경력 의무반영”…청년 공약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모든 공공기관이 호봉을 산정할 때 군 복무경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공약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공약을 발표하며 “군 복무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국민연금 관련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제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군 복무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만큼 승진 심사에까지 해당 호봉을 반영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며 이 같은 ‘군 가산점’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민간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 의무 반영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의 관심사인 ‘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가칭 ‘청년미래저금’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청년층 주거와 관련해서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불안을 덜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세 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한 전·월세 보증금 사기 가해자 처벌 강화도 공약했다.

1인 여성 가구에 대해서는 범죄 예방 시스템 및 긴급대응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청년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관련 지원도 확대해 청년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는 성장하지만 청년을 방치한 사회는 퇴보한다”며 “청년이 마음껏 일하고 자산을 키우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원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